

APEC 보건의료 발전 전략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의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보건의료 로드맵



APEC
CEO SUMMIT
KOREA 2025

“

보건의료는 이제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의 회복탄력성과 성장의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생명공학·AI가 만드는 스마트 보건의료,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의 형평성과 회복탄력성은
앞으로의 변화를 견인할 핵심 축입니다.

지금은 APEC 보건의료 체계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

편제성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리더
경영자문부문

APEC 보건의료는 현재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권(APEC) 보건의료 현황



고령화·만성질환·의료 불평등 심화로
보건의료 체계 부담 확대



디지털 헬스·생명공학·AI의 발전으로
의료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기회 부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로드맵은
데이터·생명공학·AI 기반의 **스마트 혁신**과
형평성·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해
APEC 보건의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전략 제시



상세한 내용은 리포트 전문에서 확인하세요!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APEC 국가 간 의료 격차

고소득 국가



홍콩

85.2세

기대수명



한국

12.7개

병상 수
(1,000명당)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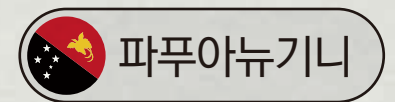


미국

16.5%

보건의료 지출
(GDP 대비)

개발도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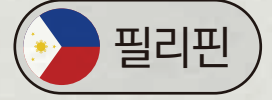
파푸아뉴기니

66.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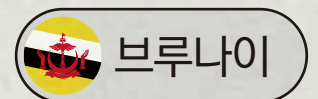


멕시코

1.0개



필리핀



브루나이

1.8%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

인구 구조 변화로 커지는 보건의료 부담



고소득 국가

고령자 돌봄 비용 증가와
재정 지속 가능성 위기

▶▶▶ 진행중

고령화



출산율 감소

▶▶▶ 예방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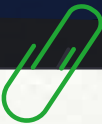
개발도상국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는
제도·재정 기반 구축 필요

보건의료 재정 구조 재설계,
예방 중심의 장기 요양 인프라 구축,
인구 변화에 대응할 정책적 체계 강화 시급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보건의료를 이끄는 동력

데이터 → 생명공학 → AI



✓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료를 '감'이 아닌 '사실과 패턴'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출발점

질병 가능성 예측, 맞춤형 치료 설계, 정책 수립 위한 근거 제공

✓ 생명공학은 이 데이터를 '정밀진단·개인맞춤 치료·예방 전략'으로
전환하는 가교

특히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빠르고 정확한 의료 개입 실현

✓ AI는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모든 인구집단에게 도달시키는 촉매제

비전문가 위해 기술 장벽 낮추고 맞춤형 진료와 의료 형평성을 확대

보건의료 회복 탄력성 높이려면 공급망 강화가 핵심

공급망은 스마트 헬스케어의 핵심 인프라로,
위기에도 의약품, 기기, 기술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

핵심과제

- ✓ 제네릭·바이오시밀러 확대, 가격 투명성 제고,
공정한 조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접근성과 비용 부담 개선
- ✓ 필수·원료의약품, 의료기기의 **역내 생산 강화**
- ✓ 팬데믹과 무역 갈등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해**,
공급망의 무결성 확보
→ 위기 시 의약품 접근이 차단되지 않도록 보장

포용적 보건의료를 위한 기반 마련



혁신이 '일부'가 아닌 모든 인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핵심과제

- ✓ 형평성 강화를 위해 재정여력 확충, 예방·1차의료 투자, 보험보장 확대가 필수
- ✓ 신경·발달장애 증가 등 새로운 위기는 재정-인재-데이터-인프라의 통합적인 대응 필요
- ✓ 국가 간 규제 조화·규제 연계는 중복을 줄여 혁신적인 치료의 도달 속도 개선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가 제안하는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보건의료 로드맵

국가 간 협력 강화와 규제 체계 간의 조화를 통해,
APEC 회원국들은 효율성과 회복탄력성은 물론,
형평성과 포용성을 갖춘 보건의료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단기
(1~3년)



중기
(3~7년)



장기
(7~15년)

- ✓ 1차의료, 디지털 플랫폼, 건강보험 확대에 투자해 스마트 보건의료 기반 마련
 - ✓ APEC 규제 연계 및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도입
-
- ✓ 정밀의료 및 생명공학 R&D 체계 정비
 - ✓ 통합적인 장기요양 시스템 확대
 - ✓ 국가 협력 제조 역량 강화
 - ✓ 공공-민간 구조를 기반의 공급망 조정 역량 제고
-
- ✓ 임상 진료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
 - ✓ 뇌 건강을 공중보건 우선 과제로 설정
 - ✓ APEC 역내 규제 조화 달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동반자로서 제약사, 의료 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기업의 전략적 과제와 혁신을 함께 해왔습니다.

약사 등 전문 자격 소지한 전문가를 국내 최다로 보유한 산업 전문팀은 다년간의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 기업이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편제성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1979
@ jpyeon@deloitte.com



안동휘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617
@ doahn@deloitte.com



박태호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2163
@ taehpark@deloitte.com



이호진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세무자문 부문

☎ 02 6099 4472
@ hojilee@deloitte.com



안종식 수석위원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컨설팅 부문

☎ 02 6676 2988
@ jongsahn@deloitte.com



이명현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컨설팅 부문

☎ 02 6138 5191
@ myelee@deloitte.com



김영인 Manager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경영자문 부문

☎ 02 6138 6520
@ younginkim@deloitte.com



이보라 Senior Consultant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1458
@ blee6@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연구원
권은진 Senior Consultant

eukwan@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